

 금융위원회		<h1>보 도 자 료</h1>			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금융감독원	
보도		배포 후 즉시		배포	2019.6.12.(수)	
책 임 자	금융위 감독제도팀장 이 동 엽(02-2100-2591)			담 당 자	이 영 평 사무관 (02-2100-2592) 김 동 현 사무관 (02-2100-2593)	
	금융위 지배구조팀장 고 상 범(02-2100-2520)				반 준 성 사무관 (02-2100-2525) 홍 연 제 사무관 (02-2100-2521)	
	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장 이 영 로(02-3145-8200)				김 형 원 팀 장 (02-3145-8204)	

제 목 : 「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기준」 개정 · 연장
금융위 의결

1 개정 배경

- ☐ 금융위원회는 '19.6.12일(수)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「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정」 개정·연장안을 의결하였음*

* 개정안 사전예고(5.14~6.3) → 행정지도 심의위(6.5~6.10) → 금융위 의결(6.12)

- ☐ 금융위원회는 「금융그룹감독제도」 도입을 위해 '18.7.2일 모범
규준을 제정하고, 7개 금융그룹*에 모범규준을 시범적용(1년 시한)

※ 국정과제 24-4

* (시범적용 7개 금융그룹) 삼성, 한화, 미래에셋, 교보, 현대차, DB, 롯데

- 이번 개정은 1년간 제도를 시범운영*하면서 제기된 금융그룹
건의사항,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

* 추진경과 (1) '18.1월 제도 도입방안 발표 → (2) '18.7월 모범규준 시범운영
(3) '18.8~11월 금융그룹 현장점검 → (4) '18.6월·11월 법 제정안 발의

※ 「금융그룹감독제도」 도입 필요성

- (1) 국제규범의 조속한 도입 (예: '99년 Joint Forum 금융그룹감독원칙)
- (2) 금융그룹 동반부실 방지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(예: '13년 동양사태)
- (3) IMF는 '13년 한국에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 촉구 + '19~'20년 FSAP 중점평가 시행

◆ [참고] 「모범규준」 주요내용

- (1) **(감독대상 지정)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***을 감독대상으로 지정
* 여수신·보험·금투업 중 둘 이상 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
- (2) **(그룹별 위험관리체계 구축)** 금융그룹 내 **대표회사를** 선정하고, 대표회사는 위험관리정책 수립 등 **금융그룹 건전성 관리** 관련 업무를 이행
-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**위험관리협의회 설치·운영**
- (3) **(금융그룹 건전성 관리)** 금융그룹 차원의 **자본적정성, 내부거래·집중위험, 비금융회사로부터의 위험전이** 등 금융그룹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·감독

2 주요 내용

① 모범규준 적용시한 연장

- '19.7.1일 만료되는 모범규준의 시범적용 기간을 1년간 연장
(시범적용 연장기간 : '19.7.2 ~ '20.7.1일)
- 法 시행(공포 후 유예기간 6개월) 직전까지는 모범규준 적용

2. 감독대상 예외사유 추가

- **(현행)** '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'을 감독대상으로 하되, 금융그룹감독 실의이 적은 경우 감독대상에서 제외 가능*

* 現 모범규준의 지정 예외대상은, ①금융지주·국책은행 그룹, ②구조조정 진행 그룹, ③감독실익이 적은 그룹(업권별 자산·자본 비중, 시장점유율 등 고려)

- (개 정) 전업 GP가 지배구조의 '최상위'에 있는 금융그룹 등을 감독대상 제외사유에 추가
 - ⁽¹⁾ 전업 GP는 PEF를 통한 수익실현을 위해 피투자회사를 한시적으로 지배(「자본시장법」상 15년內, 통상 5~8년) → 금융회사 지배를 금융업 지속영위 목적(금융그룹 형성)으로 보기 곤란

- ② PEF를 통한 투자의사결정은 위험전이·이해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음*

* 예: ① 동일 GP의 경우에도 PEF들의 투자의사결정은 서로 독립적(상이한 LP들로 구성),
② 「자본시장법」상 GP의 PEF 운용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정

※ (참고) ① 전업 GP가 다른 회사의 지배를 받는 경우 또는 ② 전업 GP가 아닌 기업집단 계열 PEF는 금융그룹감독 회피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감독대상에 포함

③ 法 체계 정합성 제고

- (현 행) 제도도입 초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, 대표회사 주도의 그룹리스크 관리체계 구축·운용을 선언적으로 규정*했으나,

- 동 조항들이 대표회사에 ① 금융계열사에 대한 경영지휘 권한을 부여하고^{아예(1)(3)} ② 그룹이익의 우선적 고려의무를 부과^{아예(2)}한다는 오해를 유발하여, 「상법」상 개별사 독립원칙과 상충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

* 「모범규준」 관련내용

- (1) 대표회사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적절한 권한확보 의무 (§7②)
- (2) 대표회사 이사의 금융그룹 이익을 위한 리스크관리 수행 의무 (§7③)
- (3) 대표회사 이사회의 금융계열사별 위험부담한도 결정 (별표1)

- (개 정) ① 「상법」과의 정합성, ② 그룹별 준비상황*을 고려하여 리스크관리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조항 삭제

* 시범운영기간(1년) 동안 ① 그룹별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협의회 설치,
② 대표회사의 그룹내 자료취합체계 운영 등 리스크관리체계 구축

- 해당 조항들은 유사한 이유로 국회에 발의된 「금융그룹감독법안」에도 없는 내용임 ('18.6월 박선숙의원 발의안, '18.11월 이학영의원 발의안)

※ (참고) 개정 후에도 대표회사의 그룹리스크 관리업무 수행에 영향은 없을 전망
(1) 모범규준에서 대표회사의 리스크관리업무(예: 그룹 위험관리정책·기준 마련,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, 보고·공시업무 수행)를 명확히 규정 (§7①)
(2) 대표회사에 대한 금융계열사의 성실 협조의무 명시 (§7④)

④ 보고·공시기한 연장

- (현 행) 대표회사는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사항을 매분기말 2월내(결산일 3월내) 당국에 보고하고 3월내 공시

- (개 정) 대표회사의 보고 및 공시기한을 필요시 각 15일 연장*

* 금융그룹감독 시범운영 단계로 실제 운영결과 보완사항이 빈번했던 점 등 감안

※ 모범규준 연장과 함께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現 7개 금융그룹을 유지* (☞ 참고)

* '19.7.2일 모범규준 연장시, 해당 금융그룹에 통지 예정
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▶ 넓게 들었습니다
▶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1.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 요건 [모범규준 § 5①~③]

- ☐ 금융그룹으로서 다음 3가지 요건 모두 충족시 감독대상으로 지정
- ①복합금융그룹(여수신·금투·보험업 중 2이상 영위), ②자산총액 5조원 이상, ③금융위 인·허가 및 등록 금융회사 1개 이상
- ☐ 다만,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지정제외 가능
- ①금융지주·국책은행(산은·수은·기은) 그룹, ②구조조정 진행 그룹, ③감독실익이 적은 그룹(업권별 자산·자본 비중, 시장점유율 등 고려)

2.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

- ☐ ('18년 지정) 모범규준 제정시, 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(총 30개) 중 감독실익 등을 고려하여 7개 금융그룹*을 지정('18.7.2)

* 금융지주(9개)·국책은행(2개)을 제외하고, 주력·비주력 업종의 자산이 각 5조원이상으로 제도 도입시부터 실무TF 등에 참여하고 감독실익도 큰 7개 금융그룹을 지정

- 삼성(삼성생명), 한화(한화생명), 미래에셋(미래에셋대우), 교보(교보생명), 현대차(현대캐피탈), DB(DB손해보험), 롯데(롯데카드) ※ ()는 대표회사

- ☐ ('19년 지정) 法 제정 이전 시범운영을 지속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작년 기준을 준용하여 기존 7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재지정*

* 계열사(카드·손보) 매각을 진행중인 롯데는, 계열분리 완료시 감독대상 제외 검토('19.下)

- '19.7.2일 모범규준 연장시, 해당 금융그룹에 감독대상 지정 통지